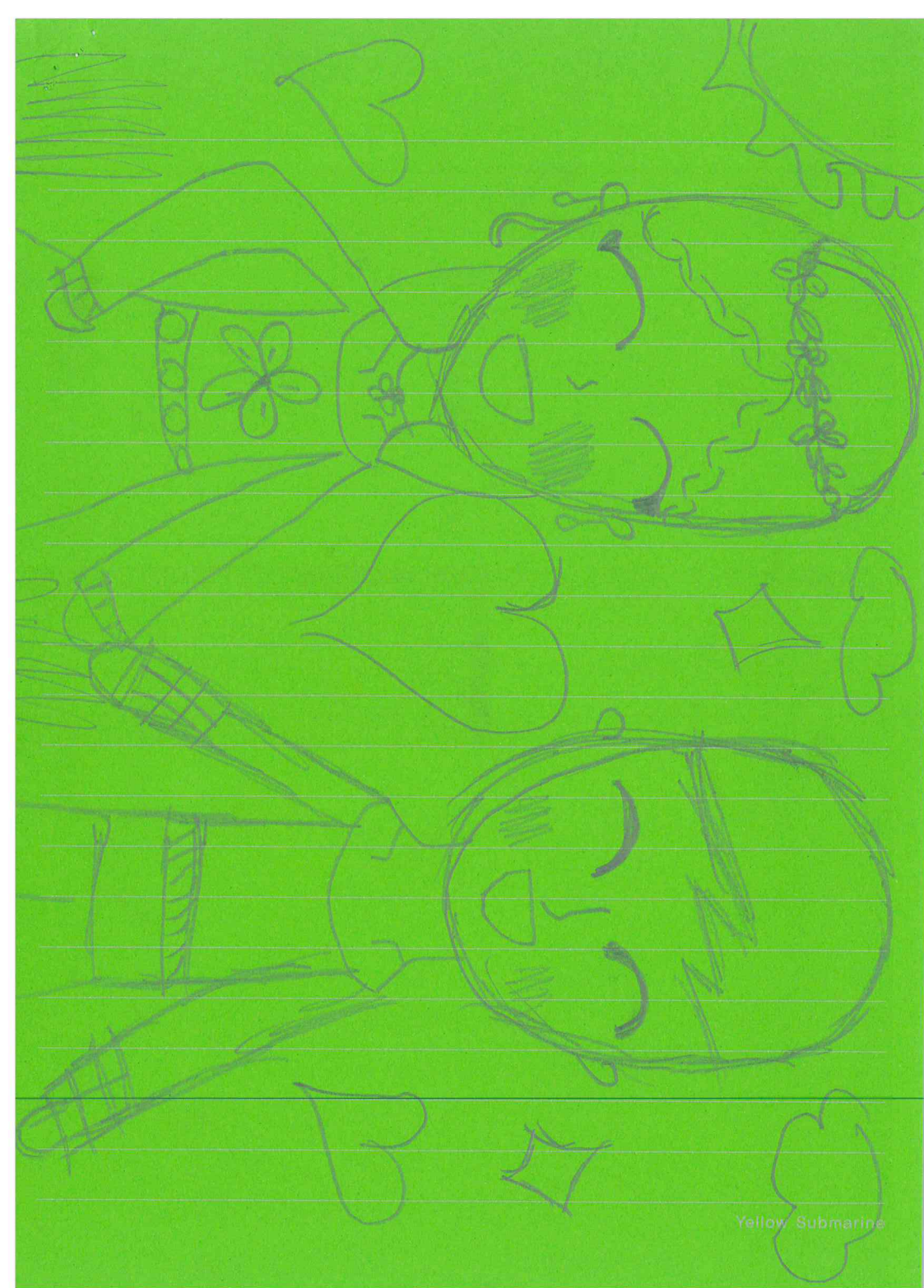


참부모님께

참아버님 참어머님 그동안 정말 감사합니다.
겨이름이 꼬려주시고 인도글해주시고
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제가 이재그
마음을 알겠습니다. 힘들어도 버텨 주셔서
제가 복받고 이러게 되었습니다. 또 아름
다운 세상을 만들어 매일 좋은 하루를
보내고 매일 감사한 마음 느끼겠습니다.
고맙습니다.

2017년 1월 8일 송경화 올림





Yellow Submarine